너희 하나님을 보라

성경말씀: 사40:1-11

이사야서: 작은 성경, 66장(39, 27장), 하나님의 심판(구약), 하나님의 은혜(신약)

1장 2절: 하늘들이여, 땅이여 들으라, 66장 22절: 새 하늘과 새 땅, 40장 3절: 침례자 요한

1-39장: 이사야 시대 사람들, 40-66장: 그 당시, 포로 생활, 마지막 예수님 재림

1-39장: 아시리아의 산혜립, 40-66장: 바빌론의 고례스

40-66장에서는 49-57장이 핵심이다. 특히 52:13-53:12가 핵심 장이다: 예수 그리스도

유대 랍비들은 40-66장을 위로의 책이라고 불렀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복귀, 예수님의 재림

40-66장의 대상: 그 당시 사람들, 예언이라는 관점에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자들

'위로하라'로 시작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자주 나옴(사41:13,14; 43:1,5; 44:2; 54;4 등)

당시 상황

히스기야가 왕이 됨(BC726),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살만에셀)에 멸망당함(BC721), 1차 침공(BC713) 산헤립의 부하 랍사게가 와서 하나님을 모욕함(36장), 36:11-12

내용: 산헤립이 정복한 모든 나라들처럼 유다도 정복될 것이다. 항복하라.

그 나라의 신들이 무슨 힘을 썼느냐? 너희 신 여호와도 마찬가지이다.

37장: 히스기야가 굵은 베를 입고 이사야를 부르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37:6-7). 주의 천사가 하루에 185,000명을 죽임(36절)

38장: 히스기야가 병이 생겨 기도하고 15년 생명을 연장 받음, 결국 120연 년 뒤 패망 나라가 풍전등화 상태에 놓임. 이렇게 39장이 끝남.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상태 40장부터는 전혀 다른 톤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신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메시지

박영돈의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지고의 행복: 영이 살아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

이 성령 충만이 어디서 오는가? 기쁨과 평안과 화평이 어디서 오는가?

얻어터지고 깨지는 데서 온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라.

완전한 평화는 이스라엘이 깨지고 내 힘을 할 수 없다고 손 들 때 메시아의 임재와 함께 생긴다. 상한 심령, 부서진 마음, 곤고한 심령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당신은 어떤가? ★★★

1. 위로의 음성(1-2절)

유다 백성의 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우상숭배, 불공정, 부도덕, 말씀에 둔감함(렘7:17-18).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은 용서하신다. 중대한 아이러니, 예표로 보여 주신다.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으면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히12장의 징계하시는 하나님(5-8절)

2. 준비하라는 음성(3-5절)

침례자 요한의 사역

대사가 왕이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길을 닦고 장애물을 치우는 모습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의 지형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다.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의 메시아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슥14:4).

지금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다.

광야: 고독한 곳, 척박한 곳, 물이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광야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광야의 시련 이후에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불기를 원하는가? 광야에 있는가? ★★★

3. 약속의 음성(6-8절)

모든 육체는 풀이다.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중국, 인도, 이집트, 고구려, 신라, 조선 모두가 육체에 지나지 않는다. 반역한 이스라엘(시78:39), 육체, 바람 하나님의 영이 불면 추풍낙엽처럼 사라지고 만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사2:22).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

올해 우리는 400주년 기념판 성경을 출간한다. ★★★

힘들다, 재정이 없다. 광고도 못한다. 그러나 이 심정으로 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벧전 1:24-25), 사55:10-11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선다. ★★★

4. 화평의 음성(9-11절)

골짜기에서 산으로 올라가 외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behold: 유심히 보라.

물론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공생애 3년 반 허사, 마23:37-39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시리아, 바빌론 왕국의 신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 어떤 하나님인가?

하늘들과 땅을 무에서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하지 않은 신은 다 가라.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이다.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분, 슬픔을 아는 분, 고통을 아는 분, 대제사장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신 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십자가에서 제거하신 분

강한 손과 팔을 가지신 분: 이집트 탈출, 홍해, 요르단 강, 갈멜 산, 역경을 이기도록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히11:6). 지금의 시련이 어려워도 믿고 나아간다.

우리의 자세: 무익한 종입니다.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편: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양들을 먹이고 안고 부드럽게 인도하는 분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먹이고 안고 부드럽게 인도해야 한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

말씀을 통해 바라볼 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 ★★★

우리의 일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 이스라엘에게는 바빌론 멸망, 재림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 곧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승리하셨다는 소식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소식

결론

당신은 어떤 상태인가? 부서진 상태인가? 스스로 충만한 상태인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

준비하라고 하신다.

약속을 주신다.

하나님을 보라고 하신다.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